

王國維 五代·北宋詞 우위론의 실제비평양상과 주요 논점 고찰*

홍서연**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고평가군에 대한 검토
3. 저평가군에 대한 검토
4. 복합평가군에 대한 검토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五代·北宋詞 우위론은 境界說과 함께 王國維의 詞論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논제라고 할 수 있다.¹⁾ 왕국유는 『人間詞話』²⁾ 발표본 제1조에서 자신의 詞비평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1030725).

** 高麗大 中文科 講師.

1) 필자는 王國維 사론의 이론체계로서 境界說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줄고인 『王國維 境界說 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

2) 王國維의 『人間詞話』는 詞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서로 그 체제는 이론비평과 실제비평이라는 이원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총 154조목 중 전반부의 1-9조목이 이론비평에 해당되고 나머지 조목들은 실제비평에 해당된다. 이론비평부분에서는 '境界'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평의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비평부분에서는 역대 중국의 대표적인 詞 작가와 작품을 주요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비평을 가하고 있다. 실제비평의 일부 조목에서 王國維는 詩經과 楚辭, 李白과 杜甫 등 중국의 역대 주요 詩와 시인 및 王士禛이나 嚴羽 등의 詩論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지 詞비평에 대한 그 자신의 논점을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人間詞話』를 전문적인 詞論書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체계에서 비평의 핵심 기준이 境界이며 이를 근거로 五代와 北宋 詞의 문학적 성취가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詞는 境界를 최상으로 한다. 境界가 있으면 저절로 높은 품격을 이루고 저절로 名句를 지니게 된다. 五代와 北宋의 사가 유난히 뛰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³⁾

그러나 왕국유 사론과 관련된 기존연구는 그 대부분이 왕국유 사론의 이론체계인 境界說에 치중되어 있어 五代·北宋詞 우위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人間詞話』 내 실제비평 각 조목 안에 응축되어 있는 많은 정보의 양과 인상비평이라는 『人間詞話』의 비체계적이고 압축적인 기술방식이 연구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유창교의 박사논문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주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⁴⁾ 본고는 이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人間詞話』 내 실제비평의 각 조목 속에 담긴 비평관점과 비평내용에 주목함으로써 왕국유의 五代·北宋詞 우위론의 구체적인 전개양상과 그 안에 내재된 주요 논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人間詞話』 내 전체 조목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도출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왕국유의 오대·북송사 우위론의 실제비평양상을 고평가군, 저평가군, 복합평가군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⁵⁾ 고평가군은 왕국유가 역대 詞 작가와 작품 중에서 그 문학적 완성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작가와 작품군이다. 왕국유에 따르면 이들은 그 자신이 주장한 境界說에 부합하는 일련의 작가와 작품군으로 왕국유는 이들이 서정시의 본질이자 생명인 서정의 진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동시에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오대와 북송의 사인과 작품이 이에 속한다. 반면 저평가군

3)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第1條: 詞以境界爲最上. 有境界, 則自成高格, 自有名句. 五代·北宋之詞所以獨絕者在此.

4) 柳昌嬌, 『王國維 文藝批評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년, 207-246쪽 참조.

5) 줄고, 『『人間詞話』 내 이론비평과 실제비평의 상관성 검토-비평대상·비평기준·비평기준 적용양상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제67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언학회, 2015 참조.

은 서정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표현력보다는 과도하게 기교에 의존했다고 판단된 작가와 작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왕국유에 따르면 이들은 境界說에 부합되지 않는 그룹으로 신기질을 제외한 남송의 주요 사인과 작품이 주를 이룬다. 복합평가군은 왕국유가 그들의 문학적 성취를 전반적으로 고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작품에 서정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외형적인 기교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점을 들어 끝내 고평가군으로 귀속시키지 않은 작가와 작품군을 가리킨다. 북송의 주방언과 남송의 강기가 대표적이다.

본고는 이들에 대한 왕국유의 비평이 5개의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른바 5개의 주요 관점은 ‘서정의 진정성론’, ‘자연스러운 표현론’, ‘풍격론’, ‘작가 간 계보론’, ‘文人詞論’ 등으로 개괄할 수 있다. 이때 ‘서정의 진정성론’은 境界說을 구성하는 핵심 조건으로서 내용에 있어서의 서정의 진정성 문제를 강조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시론에서 줄곧 강조되어온 창작의 동기로서 창작자의 내발적인 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스러운 표현론’은 형식에 대한 논의로 서정의 진정성 문제와 함께 境界說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조건이자 비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언어의 표현력과 구성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풍격론’은 개별 작가 혹은 개별 작품의 스타일에 대한 논의로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세계나 작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가 간 계보론’은 시와 사를 넘나들며 주요 작가 간에 형성된 풍격상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으며 ‘文人詞論’은 詩와 詞를 포함한 중국의 전통적인 서정시의 문인화 과정에 대한 왕국유의 관점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연구대상으로 周錫山本 『人間詞話』를 저본으로 삼아 총 154조목에 이르는 『人間詞話』 전 조목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人間詞話』 판본은 몹시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그 중에서 周錫山本을 선택한 것은 周錫山本이 모든 판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人間詞話』 手稿本 125조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 『人間詞話』의 전체적 면모는 물론 왕국유 詞論의 논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는 논의의 밀도를 위해 총 154조목의 周錫山本 『人

『人間詞話』 중에서 發表本 64조목을 논의의 중심대상으로 삼았다.⁶⁾

2. 고평가군에 대한 검토

왕국유의 五代·北宋詞 우위론과 관련해 고평가군에 대한 논의는 『人間詞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평가군을 형성하는 작가군은 馮延巳, 韋莊, 李璟, 李煜, 范仲淹, 夏竦, 徽宗, 歐陽脩, 秦觀, 晏殊, 晏幾道, 柳永, 張先, 賀鑄, 蘇軾, 周邦彥, 張榘 등으로 이들은 모두 五代와 北宋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논의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五대의 李煜과 馮延巳, 그리고 북송의 歐陽脩, 秦觀, 蘇軾 등이다. 이와 함께 남송과 청대 작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평가된 작가는 辛棄疾과 納蘭性德 두 사람뿐이다. 이들 고평가군과 관련된 왕국유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서정의 진정성’과 ‘언어를 포함한 표현력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1) 李煜과 馮延巳

五대의 李煜은 왕국유가 가장 높이 평가한 작가 중 하나이다. 『人間詞話』에서 관련된 비평은 14·15·16·17·18·19조 등 모두 6개 조목이다. 李煜에 대한 왕국유 비평의 논점은 ‘文人詞論’과 ‘서정의 진정성론’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15·19조는 ‘文人詞論’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5조에서 왕국유는 더욱 사

6) 본고는 『人間詞話』 내 모든 조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각 작가에 대한 왕국유 비평의 주요 내용을 분류·분석했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작가에 대한 왕국유의 실제비평양상과 비평의 주요논점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기술과정에서 왕국유의 비평관점과 비평내용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개입은 최대한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왕국유의 비평관점에 내용에 대해 필자가 일방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밝힌다. 아울러 개별 작가에 대한 왕국유 비평의 타당성 문제도 본고에서는 논외로 했다. 왜냐하면 개별 작가에 대한 왕국유 비평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가별로 폭넓고 심도 있는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별도의 과제로 남겨둔다.

에 이르러 사의 작품세계가 커졌고 감정도 깊어져 비로소 악공들의 사가 문인사대부의 사로 일신했다고 평가함으로써 李煜 詞의 문학사적 의미를 문인사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이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개인적이고도 여성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던 만당과 오대사의 풍토가 이육을 시작으로 비로소 지식인의 회포를 담은 문인사의 기풍으로 일신되었음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왕국유가 李煜을 온정균과 위장 아래에 둔 周濟의 관점을 비판하며 삶의 무상함을 노래한 李煜의 「烏夜啼」, 「浪淘沙令」 등이 남녀의 애정을 노래한 온정균의 『金荃集』이나 위장의 『浣花集』과는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라고 높게 평가한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⁸⁾ 왕국유가 李煜의 사를 문인사의 출발점으로 평가함에 있어 '확장된 작품세계와 깊어진 감정'에 주목한 것은 詞의 소재와 주제라는 측면에서 그 폭과 깊이가 李煜에 이르러서야 『花間集』 염정한 작품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4·16·17·18조목은 작품에 표현된 '서정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로 이는 문인사의 기풍을 연 李煜 사의 '확장된 작품세계와 깊어진 감정'이라는 특징이 실제로는 '서정의 진정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니체의 말을 빌려 이육의 사를 피로 쓴 것이라고 평가한 18조의 평가는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⁹⁾ 나아가 왕국유는 17조에서 李煜 사가 그 내용에 있어 '서정의 진정성'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를 서정시인(주관적 시인)으로서 李煜의 타고난 순수한 성정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¹⁰⁾ 이 같은 관점은 '갓난아이의 마음(赤子之心)'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라는 16조의 평가에서도 보인다.¹¹⁾ 또 14조에서 온정균과 위

7)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5條: 詞至李後主而眼界始大, 感慨遂深, 遂變伶工之詞而爲士大夫之詞. 周介存置諸溫·韋之下, 可爲顛倒黑白矣. "自是人生長恨水長東," "流水落花春去也, 天上人間!", 『金荃』·『浣花』能有此氣象耶?

8)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9條: 馮正中詞雖不失五代風格, 而堂廡特大, 開北宋一代風氣. 與中·後二主詞皆在『花間』範圍之外, 宜『花間集』中不登其隻字也.

9)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8條: 尼采謂: "一切文學, 余愛以血書者." 後主之詞, 眞所謂以血書者也. 宋道君皇帝「燕山亭」亦略似之. 然道君不過自道身世之感, 後主則儼有釋迦·基督擔荷人類罪惡之意, 其大小固不同矣.

10)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7條: 客觀之詩人, 不可不多閱世, 閱世愈深則材料愈豐富·愈變化, 『水滸傳』·『紅樓夢』之作者是也. 主觀之詩人, 不必多閱世, 閱世愈淺則性情愈眞, 李後主是也.

장의 시는 각각 구절이 우수하고 골격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반면 李煜 사의 우수성은 그 정신의 우수함에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 역시 왕국유가 이육 사의 문학적 우수함을 '서정의 진정성'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

五대의 작가 중에 왕국유가 李煜과 함께 높이 평가한 작가는 馮延巳이다. 『人間詞話』에서 馮延巳와 관련된 실제비평은 3·11·12·19·20·23·25조 등 모두 7개 조목이다. 이들 비평내용은 '서정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언어의 표현력'이 중심을 이루지만 그 안에는 '풍격론'과 '文人詞論' 등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왕국유가 제3조에서 有我之境¹³⁾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馮延巳의 「鵲踏枝」나¹⁴⁾ 제20조에서 풍연사의 걸작으로 제시한 「鵲踏枝」와 「菩薩蠻」 등은 모두 서정의 진정성과 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력에 주목해 그 작품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높은 가지에는 까치가 풀을 물어다 등지를 들고 비스듬히 기운 달은 차가운 풀을 비추네'라는 풍연사의 「醉花間」의 구절에 대해서도 왕국유는 서정의 진정성과 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력이라는 측면에서 위응물의 시구인 '개똥벌레는 높은 누각을 지나가네'나 明호연의 시구인 '보슬비는 오동나무에 방울져 떨어지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했다.¹⁵⁾ 특히 23조에서는 풍연사의 사 「南鄉子」 중의 '가랑비는 물에 비친 달빛을 적시네'라는 구절이 임포의 「點絳脣」, 매요신의 「蘇幕遮」, 구양수의 「少年游」 등과 함께 봄풀의 영혼을 포착한 명구라고 극찬하기도 했다.¹⁶⁾ 이들은 모두 왕국유가 풍연사 사의

-
- 11)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6條: 詞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故生于深宮之中, 長于婦人之手, 是後主爲人君所短處, 亦卽爲詞人所長處.
- 12)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4條: 溫飛卿之詞, 句秀也. 韋端己之詞, 骨秀也. 李重光之詞, 神秀也.
- 13) 왕국유에 따르면 有我之境과 無我之境은 경계를 지닌 작품의 두 가지 풍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有我之境과 無我之境의 이론적 특징을 '미적 주체와 미적 객체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바 있다. 참고, 「王國維 有我之境·無我之境의 이론적 특징에 관한 고찰」, 『中國學論叢』 제39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참조.
- 14)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條: 有有我之境, 有無我之境. '淚眼問花花不語, 亂紅飛過鞦韆去.', '可堪孤館閉春寒, 杜鵑聲裏斜陽暮.', 有我之境也.
- 15)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20條: 正中詞除「鵲踏枝」·「菩薩蠻」十數闕最煊赫外, 如「醉花間」之「高樹鵲銜巢, 斜月明寒草」, 余謂韋蘇州之「流螢度高閣」, 孟襄陽之「疏雨滴梧桐」, 不能過也.
- 16)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23條: 人知和靖「點絳脣」, 聖俞「蘇幕遮」, 永叔「少年游」

특징과 우수성을 서정의 진정성과 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력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왕국유는 풍격론의 관점에서는 ‘깊고 아름답고 넓고 간략하다라거나¹⁷⁾ ‘눈물 머금고 곱게 단장한 모습’이라는 평어로 환치하기도 했다.¹⁸⁾ 전자는 장혜언이 『詞選序』에서 온정균의 사를 비평한 평어를 차용한 것이고 후자는 풍연사 자신의 「菩薩蠻」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풍연사 사의 풍격에 대해 왕국유는 풍연사가 李璟, 李煜과 더불어 『花間集』의 사풍을 벗어나 비로소 문인사의 기풍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풍연사의 사가 五代의 풍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규모가 유달리 커서 北宋의 사풍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19조의 평어가 이를 뒷받침한다.¹⁹⁾ 왕국유가 이육과 함께 풍연사를 문인사의 출발점으로 평가한 것은 사의 소재나 주제의 측면에서 이육의 사가 지식인의 내면세계나 삶의 덧없음에 주목했던 것과 같이 풍연사 역시 만당의 염정한 사풍을 벗고 인간과 삶에 대한 보다 실존적인 고뇌를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歐陽脩·秦觀·蘇軾

왕국유는 歐陽脩에 대해 그 문학적 성취가 詩보다 詞에서 우수하게 발휘되었다고 평가해²⁰⁾ 歐陽脩를 오대의 이육·풍연사와 함께 가장 우수한 작가군에 귀속시키고 있다. 3·21·22·23·26·27·32·33·40·64조 등 무려 10개 조목에 이르는 관련조목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歐陽脩 비평에 나타난 왕국유의 주요 관점은 서정의 진정성(64·32조)과 자연스러운 표현력(23·40조)이 중심을 이루지만 풍격론(27·33조)과 작가 간 계보론(21·22조) 등의 관점도 다양하게 포

三闋爲詠春草絕調。不知先有正中“細雨濕流光”五字，皆能攝春草之魂者也。

17)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1條: 張皋文謂飛卿之詞, “深美閎約”, 余謂此四字唯馮正中足以當之。

18)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2條: ……若正中詞品, 若欲于其詞句中求之, 則“和淚試嚴妝”, 殆近之歟。

19)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19條: 馮正中詞雖不失五代風格, 而堂廡特大, 開北宋一代風氣。與中·後二主詞皆在『花間』範圍之外, 宜『花間集』中不登其隻字也。

20)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64條: ……讀者觀歐·秦之詩遠不如詞, 足透此中消息。

괄하고 있다. 未刊稿 2조는 왕국유가 歐陽修 詞의 문학적 성취를 서정의 진정성에서 찾고 있음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²¹⁾ 실제로 중국서정시를 대표하는 문체로서 시는 당대 근체시를 정점으로 宋代에 이르러 散文化나 說理化와 같은 다양한 실험적 모색을 시도하지만 결국 새로운 표현방식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詩라는 글쓰기 형식으로는 더 이상 인간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낼 수 없다고 느낀 구양수와 같은 일련의 복송문인들은 민간에서 출발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인 詞體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된다. 특히 만당의 온정균, 오대의 이육과 풍연사를 거치며 본격적인 문인화의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한 이 시기의 사체는 시체에 비해 훨씬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복잡한 내면을 담아내기에 시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국유는 이 조목을 통해 구양수가 이미 형식적으로 정형화되어 표현력에서 한계를 지닌 詩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詞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해 낼 수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²⁾ 왕국유는 ‘詞體의 雅化’라는 기치 아래 인위적인 彫琢을 추구하며 정형적인 형식의 틀을 강조했던 남송의 長調와 五代·北宋 초기의 小令을 각각 당대 近體詩의 律詩·排律 및 絕句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관점은 59조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왕국유가 五代나 北宋 초기의 小令이 정형화된 남송 사에 비해 형식적으로 좀 더 자유롭다는 점에서 서정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²³⁾ ‘寄興言情’이라는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21)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未刊稿』 第2條: 詩之唐中葉以後, 殆爲羔雁之具矣. 故五代·北宋之詩, 佳者絕少, 而詞則爲其極盛時代. 卽詩詞兼擅如永叔·少游者, 亦詞勝於詩遠甚, 以其寫之於詩者, 不若寫之於詞者之真也. 至南宋以後, 詞亦爲羔雁之具, 而詞亦替矣. 此亦文學升降之一關鍵也.

22) 구양수에 대한 왕국유의 비평을 통해 서정시에 대한 왕국유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즉, 왕국유는 중국 서정시의 계보라는 큰 틀 안에서 시와 사 모두가 ‘서정의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중국의 전통적인 서정시의 계보를 형성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에 비해 사가 좀 더 개인적이고도 내면적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시와 사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시와 사의 동질성과 차별성에 대한 왕국유의 인식은 『人間詞話·發表本』 53조, 『人間詞話·未刊稿』 13조, 49조 등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23)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59條: 近體詩體制, 以五七言絕句爲最尊, 律詩次之, 排

서정의 진정성을 진술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詩와 詞의 경우 모두 언어의 표현력이나 구성력에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絕句나 小令이 정형화된 후기의 律詩나 排律 또는 長調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는 왕국유가 구양수를 포함한 북송의 작가들이 詞를 통해 '감정 혹은 서정의 진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를 詞라는 새로운 문체가 지닌 '형식적 자유로움'과 연계해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歐陽修·秦觀·蘇軾 등 북송의 일부 탁월한 작가들이 개인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내면을 표현해하기에는 형식적으로 경직된 기존의 詩體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새로운 詞體가 보다 효과적임을 간파했던 사실이나²⁴⁾ 이들의 문학적 성취가 詩보다 詞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극도로 세련되고 정형화된 詩라는 형식에 비해 詞라는 문체가 그 표현력에 있어서 소박하지만 훨씬 유연하고 탄력적이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왕국유의 통찰은 일정부분 객관적 설득력을 지닌다. 23·40조는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강조한 조목으로 이들 논의 역시 상술한 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왕국유의 사비평에서 자연스러운 표현력의 문제는 결국 서정의 진정성이라는 문제와 표리를 이루며 핵심적인 논점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임포, 매요신, 풍연사와 함께 구양수의 「少年游」가 봄풀의 영혼을 절묘하게 표현해냈다는 23조의 평가나²⁵⁾ 구양수의 「少年游」에 대해 말마다 모두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평한 40조의 평가 모두 구양수가 언어표현력에 있어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면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성공했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²⁶⁾ 이처럼 서정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기초로 구현된 구양수 사의 풍격과 관련해 왕국유는 27조에서는 구양수의 「玉樓春」의 풍격을 '호방함 속에 깊은 정취가 있다'고 평했으며²⁷⁾ 33조에서는 '심원한 운치'라고

律最下。蓋此體于寄興言情，兩無所當，殆有韻之駢體文耳。詞中小令如絕句，長調似律詩，若長調之「百字令」·「沁園春」等，則近于排律矣。

24) 李澤厚 著, 『美的歷程』, 北京: 文物出版社, 1994, 156-162쪽 참조.

25)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23條: 人知和靖「點絳脣」, 聖俞「蘇幕遮」, 永叔「少年游」三闋爲詠春草絕調。不知先有正中「細雨濕流光」五字, 皆能攝春草之魂者也。

26)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40條: ……詞亦如是。卽以一人一詞論, 如歐陽公「少年游」咏春草上半闋云: 「闌干十二獨憑春, 晴碧遠連雲。千里萬里, 二月三月, 行色苦愁人。」語語都在眼前, 便是不隔……

평했다.²⁸⁾ 나아가 왕국유는 구양수 사의 이 같은 풍격이 풍연사의 사를 계승했다고 보았다. 21조에서 왕국유가 歐陽修의 詞「浣溪沙」중의 '푸른 버들에 싸인 누각 밖으로 그녀가 나오네.'라는 구절을 두고 馮延巳의 詞「上行杯」중의 '버드나무 밖 그녀가 채색된 담장 위로 나오네.'라는 구를 계승했지만 구양수가 한층 더 뛰어 나다고 평가한 것은 그 한 예이다.²⁹⁾ 같은 맥락에서 왕국유는 22조에서 구양수가 평생 풍연사의 사를 배우는데 힘썼다고 평하면서 구양수 사의 원형이 풍연사임을 거듭 강조했다.³⁰⁾

秦觀은 구양수 소식과 함께 왕국유가 가장 높이 평가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관련조목은 28·29·30·32·33·34·64조 등으로 비평의 초점 역시 깊이 있는 서정성과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강조한 논의(28·29·30·32·33조)에 모아 지고 있다. 秦觀과 관련된 비평에서 주목되는 가장 큰 특징은 왕국유가 진관을 歐陽修와 동열에 놓고 북송에서 문학적 성취가 가장 뛰어난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2조에서 왕국유가 형식에 치중한 주방언의 사를 기생의 사라고 혹평한 것에 반해 구양수와 진관의 사를 두고는 정신의 품격을 갖춘 숙녀의 사라고 평가한 것 역시 동일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구양수와 진관의 사가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통해 서정의 진정성을 확보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¹⁾ 자연스러운 언어의 표현력은 왕국유가 진관을 높이 평가한 또 다른 측면이기도 했다. 다만 34조에서는 진관이 「水龍吟」에서 대체자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실은 이 역시도 서정시에서 언어 표현력의 자연스러움이 서정의 진정성을 구현하는 것과 밀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

27)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27條: 永叔“人間(當作“生”)自是有情痴, 此恨不關風與月.”“直須看盡洛城花, 始與(當作“共”)東(當作“春”)風容易別.”于豪放之中有沉着之致, 所以尤高.

28)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33條: 美成詞深遠之致不及歐秦,……

29)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21條: 歐九「浣溪沙」詞“綠楊樓外出秋千.”晁補之謂只一“出”字, 便後人所不能道. 余謂: 此本於正中「上行杯」詞“柳外秋千出畫牆.”但歐語尤工耳.

30)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22條: ……余謂馮正中「玉樓春」詞: “芳菲次第長相續, 自是情多無處足. 尊前百計得春歸, 莫爲傷春眉黛蹙.”永叔一生似專學此種.

31)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32條: 詞之雅·鄭, 在神不在貌. 永叔少游雖作艷語, 終有品格. 方之美成, 便有淑女與倡伎之別.

다.³²⁾

秦觀 사의 독특한 정취에 대해 33조에서 왕국유는 그 풍격을 ‘심원한 운치(深遠之致)’로 개괄하면서 기교로 흐른 주방언과 달리 진관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서정의 진정성을 확보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³³⁾ 또 28조에서는 馮夢華가 『宋六十一家詞選』의 서문에서 진관과 안기도를 평한 것을 차용해 진관 사의 풍격을 ‘담담한 시어들은 모두 여운이 있고 평이한 시어는 모두 운치가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馮夢華의 평어에 대해 왕국유는 이는 진관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馮夢華가 秦觀과 晏幾道の 풍격을 동등하게 본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안기도의 사가 비록 아끼고 귀하게 여길 만하지만 張先이나 賀鑄에게 비할 수 있을 뿐 진관에 필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北宋의 婉約派를 대표하는 작가로 간결하면서도 담백한 언어로 삶에 대한 진솔하면서도 깊은 정서를 담고 있는 秦觀 사에 왕국유가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秦觀 사에 담긴 독특한 정취를 王國維는 29조에서는 ‘쓸쓸한 아름다움(淒婉)’과 ‘쓸쓸한 처연함(淒厲)’으로 개괄하기도 한다.³⁵⁾ 29조에서 ‘쓸쓸한 아름다움(淒婉)’과 ‘쓸쓸한 처연함(淒厲)’이라고 평가한 秦觀의 대표작 「踏莎行」의 ‘可堪孤館閉春寒, 杜鵑聲裏斜陽暮.’라는 구절에 대해서 왕국유는 30條에서 『詩經』의 「鄭風·風雨」와 屈原의 『九章·涉江』, 그리고 王績의 시 「野望」과 함께 비슷한 기상을 보인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³⁶⁾

- 32)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4條: 詞忌用替代字. 美成「解語花」之“桂華流瓦”, 境界極妙. 惜以“桂華”二字代“月”耳. 夢窗以下, 則用代字更多. 其所以然者, 非意不足, 則語不妙也. 蓋意足則不暇代, 語妙則不必代. 此少游之“小樓連苑”·“繡轂雕鞍”所以爲東坡所譏也.
- 33)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3條: 美成詞深遠之致不及歐秦, 唯言情體物, 窮極工巧, 故不失爲第一流之作者. 但恨創調之才多, 創意之才少耳.
- 34)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28條: 馮夢華『宋六十一家詞選·序』謂: “淮海, 小山, 古之傷心人也. 其淡語皆有味, 淺語皆有致.” 余謂此唯淮海足以當之. 小山矜貴有余, 但可方駕子野·方回, 未足抗衡淮海也.
- 35)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29條: 少游詞境最爲淒婉. 至“可堪孤館閉春寒, 杜鵑聲裏斜陽暮.” 則變而淒厲矣. 東坡賞其後二語, 猶爲皮相.
- 36)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0條: “風雨如晦, 鷄犬不己”, “山峻高以蔽日兮, 下幽晦以多雨. 霰雪紛其無垠兮, 云霏霏而承宇.” “樹樹皆秋色, 山山唯落暉.” “可堪孤館閉春寒, 杜鵑聲裏斜陽暮.” 氣象皆相似.

구양수·진관과 함께 왕국유가 북송의 최고 작가로 평가한 것은 소식이다. 관련 비평조목은 31·37·38·40·44·45·46조 등이다. 비평의 주요 논점은 서정의 진정성(37·38·44조)과 자연스러운 표현력(40조)을 주조로 풍격론(31·44·45·46)과 작가 간 계보론(31·44·45·46조) 등이 폭넓게 언급되고 있다. 우선 37조에서 왕국유는 버들개지를 노래한 소식의 사 「水龍吟」이 실제로는 원작인 章槩의 사 「水龍吟-楊花」에 화답한 작품이면서도 그 작품성에서 章槩의 사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평가하며 소식의 천부적인 자질을 극찬했다.³⁷⁾ 또 38조에서도 소식의 「水龍吟」을 두고 표현이 생생하고 자연스러워 詠物詞의 최고라고 평가했다.³⁸⁾ 40조에서는 소식의 경우 이 같은 자연스럽고도 생생한 표현력이 사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빛을 발한다며 그 천재성을 극찬했다.³⁹⁾ 한편 소식 사에 대한 왕국유의 비평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식 사의 풍격과 작가 간 계보에 대한 논의이다. 왕국유는 31·44·45·46조 등에서 소식과 도연명, 소식과 신기질 사의 풍격을 병행해 평가하면서 그 작품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31조에서 왕국유는 ‘자유분방하면서도 분명하여 홀로 못사람을 뛰어 넘으며 그 억양이 맑고 시원해 견줄 자가 없다’는 도연명 시에 대한 蕭統의 평어를 소식에게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소식과 도연명 사이의 친연성을 강조했다.⁴⁰⁾ 또 44·45·46조에서는 소식과 신기질의 사풍을 비교하며 두 작가의 작품 간 연계성에도 주목했다. 44조에서 왕국유는 소식과 신기질의 사풍에 대해 각각 활달함(曠)과 호탕함(豪)으로 개괄하면서 많은 이들이 감정의 진정성 없이 그들의 사를 모방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마치 동시가 서시를 흉내 내는 것과 같으며 그들의 사풍이 모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⁴¹⁾ 또 45조에서는 소식과 신기질 사의 공통적인 풍격

37)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7條: 東坡「水龍吟」詠楊花, 和韻而似原唱, 章質夫詞, 原唱而似和韻, 才之不可強也如是!

38)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8條: 詠物之詞, 自以東坡「水龍吟」爲最工.

39)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0條: 東坡之詩不隔.

40)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1條: 昭明太子稱陶淵明詩“跌宕昭彰, 獨超衆類, 抑揚爽朗, 莫之與京.”王無功稱薛收賦“韻趣高奇, 詞義晦遠, 嵯峨蕭瑟, 真不可言.”詞中惜少此二種氣象, 前者唯東坡, 后者唯白石, 略得一二耳.

41)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4條: 東坡之詞曠, 稼軒之詞豪, 無二人之胸襟而學其詞, 猶東施之效捧心也.

을 伯夷와 柳下惠의 기풍을 닮은 넓은 도량과 고상한 운치(雅量高致)로 개괄하기도 했다.⁴²⁾ 46조에서는 소식과 신기질 두 작가의 작품세계가 모두 거칠 것 없는 자유분방함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⁴³⁾

(3) 辛棄疾과 納蘭性德

상기한 五代·北宋의 詞작가들과 함께 남송과 청대의 작가들 중 유일하게 고평가된 작가는 辛棄疾과 納蘭性德 두 사람뿐이다. 우선 辛棄疾과 관련된 조목은 26·43·44·45·46·47조 등이다. 비평의 주요 논점은 서정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26·43조)과 신기질 사풍과 소식·굴원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44·45·46·47조)가 주를 이룬다. 43조는 조목 전체가 신기질에 대한 평가에 할애되고 있어 신기질에 대한 왕국유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왕국유는 남송의 시인 중에서 유일하게 신기질을 고평가 대열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그 비평의 근거는 강기·육유·오문영 등 남송의 다른 작가들과 달리 신기질의 작품만이 서정의 진정성을 갖추고 있어 境界가 있다고 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국유가 활동했던 만청시기의 사단풍토는 절서파와 상주파의 영향 속에서 북송사를 멀리 하고 남송사를 추앙하고 모방하는 분위기였다. 왕국유는 그들이 남송사를 추앙한 이유에 대해 남송의 시는 배울 수 있지만 북송의 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당시의 사단이 남송의 시인 중에서도 姜夔와 吳文英을 추앙하되 신기질을 배척한 것은 형식에 치중한 강기와 오문영의 시는 배울 수 있지만 서정의 진정성이라는 내용에 치중한 신기질의 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심지어 왕국유는 신기질 사의 한 특징인 거친 해학성은 배울 수 있지만 신기질 사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서정성만은 인위적으로 배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강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신기질 사의 호방한 풍격에 대해 '흰 물결을 가로질러 흐르고 푸른 구름을 뚫고 곧장 올라간다.'라는 陶淵明에 대한 蕭統의 평가

42)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5條: 讀東坡·稼軒詞, 須觀其雅量高致, 有伯夷, 柳下惠之風. 白石雖似蟬蛻塵埃, 然終不免局促轅下.

43)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6條: 蘇辛, 詞中之狂.

를 인용해 평함으로써 신기질 사의 독특한 서정성을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⁴⁴⁾ 왕국유가 신기질 사의 문학적 우수성을 독창적인 서정성에서 찾아내는 한편 그 풍격의 특징을 陶淵明의 작풍과 연계해 설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26조에서는 ‘그대 찾아 무리 속을 천 번 백 번 헤매었지. 문득 고개 돌려 보니 그대는 마침 꺼져가는 등불 아래 있었네.’라는 신기질의 「靑玉案·元夕」 중의 한 구절을 인생의 최고 경계를 절묘하게 노래한 것이라고 평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은 위대한 詞人이 아니고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⁴⁵⁾ 풍격상의 연계성에 있어 앞의 43조가 신기질과 도연명의 연관성에 주목했다면 44·45·46조 등에서 왕국유는 신기질과 소식 사와의 상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소식 조목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왕국유는 44·45·46조목 등에서 신기질 사와 소식 사의 풍격을 비교하며 그들 작풍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소식과 신기질의 각기 활달하고(曠) 호탕한(豪) 사풍을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사풍이라고 강조한 44조, 그들 사의 공통적인 풍격을 넓은 도량과 고상한 운치(雅量高致)로 개괄한 45조,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거칠 것 없는 자유분방함으로 평가한 46조 등은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7조에서 왕국유는 『天問』의 형식을 빌려 쓴 신기질의 「木蘭花慢」에 대해 우주의 신비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극찬하며 신기질의 시적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⁴⁶⁾

納蘭性德에 대한 언급은 51조와 52조 두 조목에 불과하지만 청대 사인으로서 경계를 지녔다고 평가되어 고평가군에 귀속된 유일한 작가는 納蘭性德뿐이다. 51조에서 왕국유는 納蘭性德의 詞인 「長相思」와 「如夢令」을 謝靈運의 詩 「歲暮」,

44)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3條: 南宋詞人, 白石有格而無情, 劍南有氣而乏韻. 其堪與北宋人頡頏者, 唯一幼安耳. 近人祖南宋而訛北宋, 以南宋之詞可學, 北宋不可學也. 學南宋者, 不祖白石, 則祖夢窗, 以白石·夢窗可學, 幼安不可學也. 學幼安者, 率祖其粗獷·滑稽, 以其粗獷·滑稽處可學, 佳處不可學也. 幼安之佳處, 在有性情, 有境界. 卽以氣象論, 亦有“橫素波·干青雲”之概, 寧後世齷齪小生所可擬耶?

45)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26條: “衆里尋他千百度, 驀然回首, 那人却在, 燈火闌珊處.” 此第三境也. 此等語皆非大詞人不能道.

46)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7條: 稼軒“中秋飲酒達旦, 用『天問』體作『木蘭花慢』以送月, 曰: “可憐今夕月, 向何處. 去悠悠? 是別有人間, 那邊才見, 光景東頭.” 詞人想象, 直悟月輪繞地之理, 與科學家密合, 可謂神悟.

朧의 詩「暫使下都夜發新林至京邑贈西府同僚」 그리고 杜甫의 詩「後出塞」(二) 와 王維의 詩「使至塞上」와 동렬에 놓고 모두 그 작품의 境界가 천고의 장관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謝靈運의 '밝은 달은 쌓인 눈을 비추네.', 謝朓의 '큰 강은 밤낮으로 흐르네.', 杜甫의 '중천에 밝은 달 걸려 있네.', 王維의 '황하에 떨어지는 해 등글기도 하여라.' 등의 詩句에 나타난 境界를 '영원한 장관'이라고 평한 왕국유는 사 중에 이러한 境界가 표현된 것을 찾는다면 오직 納蘭性德이 변방의 요새 위에서 지은 작품인 「長相思」 중의 '밤 깊은데 천개 장막의 불빛'이란 구절과 「如夢令」 중의 '수많은 흥노 장막 속에는 사람들 취해 있고 별 그림자는 흔들흔들 떨어질 듯'이라는 구절이 그에 가깝다고 높이 평가했다.⁴⁷⁾ 그리고 52조에서는 納蘭성덕을 두고 자연 그대로의 눈으로써 사물을 관찰하고 자연 그대로의 혀로써 감정을 말하였다고 평함으로써 그의 작품에 깃든 서정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納蘭性德이 서정시인에게 요구되는 진실하고도 절실함이라는 문학적 자질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족의 기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⁴⁸⁾

3. 저평가군에 대한 검토

저평가군은 고평가군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비평내용의 분량도 적고 논의의 밀도도 얇다. 고평가군에 분포된 작가가 남송의 신기질과 청대의 納蘭성덕을 제외하고는 모두 五代·北宋의 작가였던 것과 달리 저평가군에 분포된 작가는 康與之, 韓玉, 張孝祥, 史達祖, 劉過, 辛棄疾, 陸游, 姜夔, 吳文英, 蔣捷, 文天祥, 陳允平, 王沂孫, 周密, 張炎 등 모두 남송의 작가들이다. 그 중에서도 청대사단의 주류를 형성했던 절서파와 상주파가 추앙한 張炎·史達祖·王沂孫·周密·吳文英 등이

47)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51條: “明月照積雪”, “大江流日夜”, “中天懸明月”, “長河落日圓”, 此種境界, 可謂千古壯觀. 求之于詞, 唯納蘭容若塞上之作, 如「長相思」之“夜深千帳燈”, 「如夢令」之“萬帳穹廬人醉, 星影搖搖欲墜”差近之.

48)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52條: 納蘭容若以自然之眼觀物, 以自然之舌言情. 此由初入中原, 未染漢人風氣, 故能真切如此. 北宋以來, 一人而已.

주요비평대상이다. 비평의 논점은 모두 서정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표현력의 결여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왕국유는 남송사가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시어 대신에 隔字와 代替字 등 인위적인 시어를 남용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했는데, 이와 같은 남송 사의 인위적인 형식추구의 경향성과 관련해 왕국유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서정의 진정성 결여와 밀접하다고 보았다.⁴⁹⁾

우선 『人間詞話』에서 吳文英에 대한 왕국유의 평가는 모두 부정적이다. 관련 조목은 34·39·43·46·49·50 등이다. 姜夔를 계승해 사 창작에 있어 音律과 修飾을 중시한 오문영에 대한 비평에 있어 왕국유의 주요 논점은 隔字 및 대체자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왕국유는 『人間詞話』 전편을 통해 서정시의 경우 그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평이하고 일상적인 詩語의 선택과 이들 詩語의 자연스럽고도 유기적인 결합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왕국유는 詞와 같은 서정시에서 자연스러운 詩語 대신 인위적인 隔字나 대체자를 사용하게 되면 선명한 이미지의 형상화를 방해해 독자와의 소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왕국유 비평이론에 있어 不隔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력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서정의 진정성과 함께 境界說을 구성하는 또 다른 비평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왕국유 사론에서 不隔에 내재된 비평적 함의는 평이하고도 자연스러운 시어를 사용해 선명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반면 隔은 자연스러운 시어 대신에 인위적인 대체자나 전고를 남용해 선명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실패하고 나아가 의미의 전달력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9조에서 왕국유가 오문영 사의 隔字 사용을 비판한

49) 왕국유 詞論에서 '眞感情·眞景物', '不隔' 그리고 '言外之味' 등은 각각 '내용'과 '형식' 그리고 '예술적 효과로서의 美感'에 상응하는 비평적 개념으로 王國維가 자신의 詞論을 통해 문학의 본질적 요소를 개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眞感情·眞景物'은 내용에 대한 논의로 '서정의 진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不隔'의 문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문학의 형식 혹은 표현에 대한 논의로 왕국유는 사를 포함한 서정시의 경우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지향할 것을 주장했다. '예술적 효과로서의 美感'에 대한 논의인 '言外之味'는 서정시의 시적 여운으로 왕국유는 이에 대한 필수조건으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서정의 진정성'과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강조했다. 참고, 『王國維 詩學的 '不隔論'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35집, 서울, 中國語文研究會, 2007년 참조. 참고, 『王國維 境界說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90-175쪽 참조.

것은 그 논지가 표면적으로는 오문영 사의 난삽함을 지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문영의 사가 서정의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⁰⁾ 이처럼 '서정의 진정성 확보'와 '隔字 등 인위적인 시어의 무분별한 남용 금지'를 경계의 핵심 조건으로 파악했던 왕국유는 오문영을 비롯한 남송의 사달조·장염·주밀·진윤평 등이 인위적인 시어를 선호한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서정의 진정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으며 바로 이 점에서 이들 모두를 '위선자(鄉愿)'라고 혹평하기도 했다.⁵¹⁾ 한편 왕국유는 사의 창작에서 隔字와 함께 대체자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것의 남용이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34조에서 왕국유는 사에서 대체자를 사용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그 하나는 창작의 동기에 있어 작가 자신이 내면으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감정을 결여한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생생한 시어를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왕국유는 서정시의 경우 가급적이면 대체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송에 와서 대체자의 사용이 보편화된 배경에는 오문영의 사가 크게 작용했다고 인식해 이를 비판한 것이다.⁵²⁾ 나아가 절서파와 상주파 그리고 만청사단을 포함한 청대 사단이 남송의 강기와 장염 그리고 왕기손과 吳文英을 추앙한 것에 대해서 왕국유는 이들 사의 인위적인 요소들은 학습을 통해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실제로 언어의 인위적인 조탁에 치중했던 오문영의 사에 대해 왕국유는 吳文英 자신의 작품인 「秋思」의 한 구를 빌려서 '몽롱한 창을 비추며 어지럽게 흩뿌리는 푸른 빛'

50)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9條: 梅溪·夢窓·諸家寫景之病, 皆在一'隔'字.

51)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6條: 蘇辛, 詞中之狂. 白石猶不失爲狷. 若夢窗·梅溪·玉田·草窗·西麓輩, 面目不同, 同歸于鄉愿而已.

52)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4條: 詞忌用替代字. 美成「解語花」之「桂華流瓦」, 境界極妙. 惜以「桂華」二字代「月」耳. 夢窗以下, 則用代字更多. 其所以然者, 非意不足, 則語不妙也. 蓋意足則不暇代, 語妙則不必代. 此少游之「小樓連苑」·「繡轂雕鞍」, 所以爲東坡所譏也. 왕국유가 대체자나 隔字 등과 같은 요소들을 작가의 내면으로부터 발로하는 興과 상반된 범주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3條: 近人祖南宋而祧北宋, 以南宋之詞可學, 北宋不可學也. 學南宋者, 不祖白石, 則祖夢窗, 以白石·夢窗可學.

이라고 평가함으로써 그 의미의 난삽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문영과 함께 張炎에 대해서도 왕국유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비평의 논점 역시 표면적으로는 인위적인 표현력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정의 진정성 결여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0조에서 왕국유는 장염의 사를 장염 자신의 작품인 「祝英台近」의 한 구를 빌려서 ‘옥 같은 피부 늙고 발은 황폐해졌다’며 비판했으며⁵⁴⁾ 46조에서도 소식과 신기질과 달리 서정의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어 오문영·사달조·주밀·진윤평 등과 함께 ‘위선자(鄉愿)’라고 평가했다.⁵⁵⁾ 吳文英과 張炎 외에 저평가군을 형성하는 史達祖·王沂孫·周密 등 남송 사인에 대한 왕국유의 평가 역시 상기한 평가들과 대동소이하다.

4. 복합평가군에 대한 검토

복합평가군은 고평가와 저평가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평가에 치중되어 있지만 서정시의 핵심조건인 ‘서정의 진정성 결여’를 근거로 왕국유는 이들을 끝내 최고 작가군인 고평가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북송의 周邦彦과 남송의 姜夔가 대표적이다. 周邦彦에 대한 왕국유의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복합적으로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고평가되고 있지만 왕국유는 서정의 진정성 결여를 周邦彦 사의 결정적 한계로 지적하면서 끝내 고평가군으로의 귀속을 유보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 조목은 32·33·34·36·48·60 등이다. 전체적으로 서정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32·33·48조)와 자연스러운 표현력에 대한 논의(34·36조)가 주를 이룬다. 왕국유는 32조에서 주방언의 사를 내적인 서정의 진정성보다는 외면적인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기생의 사라고 혹평했는데, 이는 서정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표현력 모두를 확보한 구양수와 진관의 사를 숙녀의

54)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50條: 玉田之詞, 余得取其詞中之一語以評之, 曰: “玉老田荒.”

55)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第46條: 蘇辛, 詞中之狂, 白石猶不失爲狷, 若夢窗·梅溪·玉田·草窗·西麓輩, 面目不同, 同歸于鄉愿而已.

사로 높이 평가한 것과는 달리 주방언의 詞가 품격에 있어 내면이 아닌 외면에 치중했음을 꼬집은 것이다.⁵⁶⁾ 33조에서는 주방언의 사에도 구양수나 진관 사에 보이는 '심원한 운치(深遠之致)'와 같은 품격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구양수나 진관에는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 역시 주방언이 언어의 조탁능력이나 구성력 등 형식적으로나 기교적으로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시의 보다 본질적인 조건인 진정성 있는 감정을 결여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국유가 주방언에 대해 재주는 뛰어났지만 뜻을 창조하는 재주는 적었다고 평한 것도 주방언 사의 특징인 형식미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끝내 그의 작품에 결여된 서정의 진정성을 아쉬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⁷⁾ 따라서 48조에서 왕국유가 劉熙載의 평을 빌려 주방언의 사를 방탕하다고 평가한 것 역시도 32조에서 기생의 사라고 평가한 것과 궤를 같이하며 서정의 진정성 결여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⁸⁾

그러나 왕국유는 일부 주방언 사의 표현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34조와 36조는 주방언 사의 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36조에서 왕국유는 연꽃을 노래한 周邦彦의 詞「蘇幕遮」의 한 구절인 '연잎 위에는 첫 햇살이 간밤에 내린 비를 말리고, 물 위 푸른 동그라미, 하나씩 바람이 연잎을 들어 올리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연꽃의 정신과 이치를 잘 표현했다고 극찬했다.⁵⁹⁾ 반면에 34조에서는 주방언의 詞「解語花」의 '계수나무 꽃이 기와에 흐르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경계가 대단히 절묘하지만 '달'대신 '계수나무 꽃'이라는 대체자를 사용해 끝내 선명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隔字와 마찬가지로 代替字를 쓰게 되면 의미의 모호함을 초래해서 결국 '선명한 시적 이미지'의 형상화를 가로막게 되고 결국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정

56)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2條: 詞之雅鄭, 在神不在貌. 永叔少游雖作艷語, 終有品格. 方之美成, 便有淑女與倡伎之別.

57)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3條: 美成深遠之致不及歐秦, 唯言情體物, 窮極工巧, 故不失爲第一流之作者. 但恨創調之才多, 創意之才少耳.

58)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8條: 劉融齋謂: "周旨蕩而史意貪" 此二語令人解頤.

59)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6條: 美成「蘇幕遮」詞: "葉上初陽乾宿雨, 水面清圓, 一一風荷舉." 此真能得荷之神理者.

의 진정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실패한다고 왕국유는 생각했기 때문이다.⁶⁰⁾ 이처럼 왕국유가 줄곧 주방언 사의 특징인 형식의 우수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작품에서의 代替字 사용에 대해서는 난삽하고 추상적인 詩語의 사용으로 결국 '표현의 부자연스러움'과 '이미지의 모호함'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왕국유에게 있어 선명한 이미지의 문제는 서정의 진정성 문제와 함께 서정시의 문학적 완성도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잣대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국유는 서정시에서 '이미지의 모호함'은 결국 '의미의 모호함'을 초래해 독자에게로 전달되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왕국유가 宋詞의 집대성자이기도 했던 周邦彥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지나치게 格律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그 인위성을 이유로 최고의 작가군으로의 귀속을 유보시키고 있음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주방언과 함께 『人間詞話』에서 왕국유의 평가가 가장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은 姜夔이다. 관련조목이 31·36·38·39·40·42·43·45·46·60조 등 열 조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姜夔와 관련된 비평은 주방언과 마찬가지로 서정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42·43·45·46조)와 자연스러운 표현력에 대한 논의(36·38·39·40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왕국유는 전반적으로 강기사의 뛰어난 형식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주방언과 마찬가지로 서정의 진정성 결여를 결정적인 결함으로 지적해 최고의 작가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왕국유는 42조에서는 姜夔를 평가해 格調는 있으나 意境, 즉 언어 밖의 맛인 言外之味나 弦外之響이 없으며 일류작가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평가했다.⁶¹⁾ 왕국유의 관점에 따르면 시적 여운인 '언어 밖의 맛(言外之味, 弦外之響)'이란 서정의 진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42조의 비평은 실제로 姜夔 사가 서정의 진정성을 결여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²⁾ 또 43조에서는 格調는 있지만 情感이 없

60)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4條: 詞忌用替代字. 美成「解語花」之「桂華流瓦」, 境界極妙. 惜以「桂華」二字代「月」耳. 夢窗以下, 則用代字更多. 其所以然者, 非意不足, 則語不妙也. 蓋意足則不暇代, 語妙則不必代. 此少游之「小樓連苑」·「繡轂雕鞍」, 所以爲東坡所譏也.

61)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2條: 古今詞人格調之高, 無如白石. 惜不於意境上用力, 故覺無言外之味, 弦外之響. 終不能與於第一流之作者也.

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왕국유가 강기사의 형식적 뛰어남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적인 결함을 서정의 진정성 결여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⁶³⁾ 또 45조에 서는 소식과 신기질의 사의 풍격이 넓은 도량과 고상한 운치(雅量高致)를 지닌 것에 비해 강기의 사는 고상한 운치를 지닌 것 같지만 실은 활달함이 없어 소식과 신기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기도 했다.⁶⁴⁾ 그리고 46조에서도 강기 사를 蘇軾과 辛棄疾 사와 비교해 고집이 세고 절개가 있다고 할 만하지만 결국은 吳文英, 史達祖, 張炎, 周密, 陳允平 등 일련의 남송사인들과 마찬가지로 근자인체 하는 위선자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⁶⁵⁾ 주방언과 마찬가지로 강기에 대해 왕국유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결국은 서정의 진정성 결여를 근거로 최고작가로는 분류하지 않았다.⁶⁶⁾ 특히 표현력의 자연스러움과 관련해, 왕국유는 강기 사에 있어서의 不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주방언의 경우에 대체자 사용을 문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36조에서 왕국유는 주방언의 詞 「蘇幕遮」이 연꽃을 훌륭하게 형상화했다고 평가한 반면 姜夔의 「念奴嬌」·「惜紅衣」 등 두 작품은 안개에 가린 꽃을 보는 것 같으며 隔字 사용으로 인한 이미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⁶⁷⁾ 38조에서는 소식의 사 「水龍吟」이 표현의 자연스러움으로 최고의 詠物詞라고 극찬함과 동시에 두보가 裴迪의 시에 화답한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에서 매화를 선명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강기의 대표작인 「暗香」과 「疎影」은 비록 격조는 높지만 제대로 말해낸 것이 없으며 혹평했다.⁶⁸⁾ 「暗香」과 「疎

62) 참고, 『王國維 境界說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203-209쪽 참조.

63)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3條: 南宋詞人, 白石有格而無情.

64)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5條: 讀東坡·稼軒詞, 須觀其雅量高致, 有伯夷, 柳下惠之風, 白石雖似蟬蛻塵埃, 然終不免局促轉下.

65)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6條: 蘇辛, 詞中之狂, 白石猶不失爲狷. 若夢窗·梅溪·玉田·草窗·西麓輩, 面目不同, 同歸于鄉愿而已.

66) 왕국유는 姜夔의 詞가 다만 같고 닦는데 열중했을 뿐 내면적 아름다움이 없다고도 평가했다. 『人間詞話·未刊稿』 第49條: '紛吾既有此內美兮, 又重之以修能.' 文學之事, 於此二者, 不能缺一. 然詞乃抒情之作, 故尤重內美. 無內美而但有修能, 則白石耳.

67)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6條: 美成「蘇幕遮」詞: "葉上初陽乾宿雨, 水面清圓, 一一風荷舉." 此真能得荷之神理者.

68)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8條: 詠物之詞, 自以東坡「水龍吟」爲最工, 邦卿「雙雙燕」次之. 白石「暗香」·「疎影」, 格調雖高, 然無一語道著, 視古人「江邊一樹垂垂發」等句, 何如

影」은 매화의 이미지를 빌려 자신의 감정세계를 기탁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고 평이한 시어 대신에 전고를 사용함으로써 격률이라는 음악적 측면에서는 극도의 세련미를 완성시켰지만 매화라는 이미지의 형상화에는 소식이나 두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음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고 사용을 즐겼던 강기의 사가 결국 모호한 이미지로 의미의 전달력에서는 소식이나 두보에 미치지 못했음을 비판한 것으로 왕국유가 이것을 강기사가 지닌 최대의 문학적 한계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39조에서는 경치를 묘사한 姜夔의 작품 중에 ‘스물 네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물결은 일렁이고, 차가운 달은 소리가 없네’, ‘여러 봉우리 맑고 쓸쓸한데, 황혼녘 내리는 비와 의논하네’, ‘높은 나무에 저녁 매미, 가을바람 소식 알려주네’와 같은 구절들에 대해 비록 격조와 운치는 높고 빼어나지만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것처럼 끝내 한 층이 ‘隔’해 있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기 사가 표현력에서 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잃어 끝내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한 것이다.⁶⁹⁾ 같은 맥락에서 40조에서도 왕국유는 姜夔의 「翠樓吟」 중 ‘이곳에 분명 노래의 신선 있어, 흰 구름·황학 타고 그대와 함께 노니네. 옥 사다리에서 오래도록 바라보니, 아! 우거진 풀 천리로 뻗었네’라는 구절은 선명한 이미지의 형상화로 의미의 전달력이 높은 반면에 ‘슬로 푸닥거리하며 근심 풀고, 꽃은 영웅의 기개를 녹이네’라는 구절은 그 의미가 불분명해 의미의 전달력이 낮다고 평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표현력에 대한 강기 사의 한계를 거듭 지적했다.⁷⁰⁾ 왕국유는 강기 사에 있어서의 이 같은 ‘不隔’의 원인을 典故의 사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서정시에서 典故를 남용하는 것은 隔字나 代

耶?

69)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39條: 白石寫景之作, 如‘二十四橋仍在, 波心蕩蕩, 冷月無聲.’, ‘數峯峰清苦, 商略黃昏雨.’, ‘高樹晚蟬, 說西風消息.’, 雖格韻高絕, 然如霧裏看花, 終隔一層.

70)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 第40條: 問‘隔’與‘不隔’之別, 曰: 陶·謝之詩不隔, 延年則稍隔已. 東坡之詩不隔, 山谷則稍隔矣. ‘池塘生春草’, ‘空梁落燕泥’等二句, 妙處唯在不隔. 詞亦如是. 卽以一人一詞論, 如歐陽公「少年游」詠春草上半闕云: ‘闌干十二獨憑春, 晴碧遠連雲. 二月三月, 千里萬里, 行色苦愁人.’ 語語都在目前, 便是不隔. 至云: ‘謝家池上, 江淹浦畔’則隔矣. 白石「翠樓吟»: ‘此地, 宜有詞仙, 擁素雲黃鶴, 與君遊戲. 玉梯凝望久, 嘆芳草, 萋萋千里.’ 便是不隔. 至‘酒袂清愁, 花消英氣’, 則隔矣. 然南宋詞雖不隔處, 比之前人, 自有淺深厚薄之別.

替字의 남용과 마찬가지로 시적 이미지들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풍부한 시적 연상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독자의 감동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거듭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나가는 말

본고는 왕국유의 오대·북송사 우위론의 전개양상과 그 주요 논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른바 五代・北宋詞 우위론은 境界說과 함께 王國維의 詞論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논제로 왕국유가 『인간사회』에서 자신의 비평이론인 境界說에 근거해 역대의 주요 詞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제비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사회』 내 실제비평에 나타난 왕국유의 오대·북송사 우위론을 고평가군에 대한 논의, 저평가군에 대한 논의, 복합평가군에 대한 논의 등 세 그룹의 논의로 분류해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이들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고평가군은 왕국유가 가장 높이 평가한 최고작가군으로, 서정시에 대한 왕국유의 비평이론인 境界說에 부합하는 일련의 작가와 작품군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서정시에 대한 왕국유의 비평이론인 境界說의 핵심비평기준은 내용에 있어서는 서정의 진정성을, 형식에 있어서는 언어 표현력의 자연스러움과 선명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저평가군은 왕국유에 의해 가장 낮게 평가된 작가군으로, 서정시에 대한 왕국유의 비평이론인 境界說에 부합하지 않는 일련의 작가와 작품군을 의미한다. 복합평가군은 고평가와 저평가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평가에 치중되어 있지만 서정시의 핵심조건인 '서정의 진정성 결여'를 근거로 왕국유는 이들을 끝내 최고 작가군인 고평가군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이 특징이다. 고평가군은 오대와 북송의 작가가 주를 이룬다. 오대의 李煜, 馮延巳 북송의 歐陽脩, 秦觀, 蘇軾 등이 대표적이다. 남송과 청대에서는 辛棄疾과 納蘭性德이 유일하게 포함된다. 저평가군은 모두 남송의 작가들이다. 張炎, 吳文英, 周密, 史達祖, 王沂孫 등이 주요작가이다. 복합평가군은 북송의 周邦彥 남송의 姜夔가 대표

적이다.

비평내용의 주요논점은 '서정의 진정성론', '자연스러운 표현론', '풍격론', '작가 간 계보론', '文人詞論' 등으로 개괄할 수 있다. 이른바 '서정의 진정성론'은 境界를 구성하는 핵심 조건인 내용에 있어서의 서정의 진정성을 강조한 논의이다. '자연스러운 표현론'은 境界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조건으로 언어 형식에 있어서의 선명한 이미지와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논의이다. 특히 관련 논의에서 왕국유가 강조하는 서정시가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絶句나 小令 등 단편 서정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표현력과 관련해 왕국유가 줄곧 평이하고 진솔한 시어 및 선명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의미의 전달력을 약화시키는 隔字나 대체자 또는 과도한 전고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모두 서정시에 대한 왕국유의 기본적인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풍격론'은 개별 작가 혹은 작품의 풍격을 논한 것이다. '작가 간 계보론'은 개별 작가의 작품 간 계승관계를 논한 것이다. '文人詞論'은 시와 사를 포함한 중국 서정시의 발전사에 대한 왕국유의 인식과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평가군에 대한 논의는 이들 5개의 관점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반면 저평가군과 복합평가군에 대한 논의는 '서정의 진정성론'과 '자연스러운 표현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왕국유의 오대·북송사 우위론의 전개양상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청대 사학과와의 비교논의는 최대한 배제했음을 밝힌다.⁷¹⁾ 본고는 향후 청대사단의 남·북송사우위론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71) 청대 사단을 지배했던 남송사우위론과 왕국유의 오대·북송사 우위론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는 줄고, 『王國維 境界說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2-85쪽 참조.

〈參考文獻〉

- 王國維 著, 『王國維遺書』 全16冊, 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 _____ 著, 王幼安 校, 『蕙風詞話·人間詞話』,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80.
- _____ 著, 『『人間詞話』·『人間詞話』手稿』,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5.
- _____ 著, 徐調孚 校注, 『人間詞話』,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0.
- _____ 著, 馬自毅 注譯, 高桂惠 校閱, 『新譯人間詞話』, 臺北: 三民書局, 1983.
- _____ 著, 周錫山 編校, 『王國維文學美學論著集』, 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 _____ 著, 蔭咸惠 校注, 『人間詞話新注』(修訂本), 濟南: 齊魯書社, 1991.
- _____ 著, 蔭咸惠 譯評, 『人間詞話』,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7.
- _____ 著, 徐調孚 注, 王幼安 校訂, 『人間詞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選, 陳杏珍·劉炬 重訂, 黃霖 等 導讀, 『人間詞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_____ 著, 劉鋒杰·章池 集評, 『人間詞話百年解評』, 安徽: 黃山書社, 2002.
- _____ 著, 류창교 역주, 『세상의 노래비평』, 서울: 소명출판사, 2004.
- 汪中 註譯, 『新譯宋詞三百首』, 臺北: 三民書局, 1985.
- 溫儒敏 著, 『中國現代文學批評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 葉嘉瑩, 『王國維及其文學批評』,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
- 李澤厚 著, 『美的歷程』, 北京: 文物出版社, 1994.
- 李哲理, 『人間詞話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柳昌嬌, 『王國維의 文藝美學理論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_____, 『王國維 文藝批評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車泰根, 『王國維의 審美的 思惟와 批評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줄고, 『王國維 境界說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줄고, 「王國維 詩學的 '不隔論'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35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2007.
- 줄고, 「王國維 有我之境·無我之境의 이론적 특징에 관한 고찰」, 『中國學論叢』 제39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 줄고, 「王國維의 文體論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61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2014.
- 줄고, 『『人間詞話』 내 이론비평과 실제비평의 상관성 검토-비평대상·비평기준·비평기준 적용양상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제67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2015.

〈Abstract〉

A Study on Wang Guo-wei's Practical Criticism of the Superiority of the Five Dynasties & the Northern Song Dynasty's Ci and Its Theoretical Featur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Wang Guo-wei's practical criticism of the superiority of the five dynasties & the Northern Song Dynasty and its theoretical features. These aspects having been excluded from previous research of the Ci-xue theory by Wang Guo-wei. For that purpose, this research thoroughly analysed and translated a total of 154 articles of the Zhou Xi-shan edition of the RenJianCiHua. Those criticisms of Wang Guo-wei about important successive generations of Ci writers have been reconstructed based on those analyzed documents. Three categories resulted from the analyses of the practical criticism and its theoretical features of the superiority of the five dynasties & the Northern Song Dynasty of Wang Guo-wei: highly valued, poorly valued and complex valued. The highly valued category of writers mainly originates from the five dynasties & the Northern Song Dynasty. Representative writers of this group are: Li Yu(李煜) and Feng Yan(冯延巳) Si from the five dynasties and Ou Yang Xiu(欧阳修), Qin Guan (秦观) and Su Shi(苏轼) from the Northern Song Dynasty, with the exception of Xin Qi Ji(辛弃疾) and Na Lan Xing De(纳兰性德), respectively from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the Ch'ing dynasty. All the writers belonging to the poorly valued category originate from the Southern Song Dynasty, such as Zhang Yan(张炎), Wu Wen Ying(吴文英), Zhou Mi(周密), Shi Da zu(史达祖) and Wang Yi Sun(王沂孙). Representative writers belonging to the complex valued category are Zhou Bang Yan(周邦彦) and Jiang Kui(姜夔), respectively from the Northern Song Dynasty and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theoretical features of this criticis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incerity of the emotions', 'natural form of language', 'writer's style', 'relations between the writers through the ages', and 'Wen Ren Ci'. This research could be used in the future as elementary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superiority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 the Northern Song Dynasty of the Ch'ing dynasty's Ci-xue theory.

Key Words: Wang Guo-wei, practical criticism, the five dynasties, the Northern Song Dynasty,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oretical features

이 논문은 2017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